순례문화 견인차, 108산사회 '10돌'

10월 14~15일, 10주년 법회
대장정 기록한 백서 발간도

817만3560㎞. 지구 204바퀴, 달까지 11번 왕복할 수 있는 이 거리는 선묵 혜자 스님의 108산사순례기도회가 그동안 순례를 위해 이동한 수치다. 2006년 9월 서울 도선사 입재 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영축총림 통도사부터 2015년 10월 서울 도안사 회향에 이르기까지 매달 5천여 불자들이 순례길에 나섰다. 9년간의 대장정, 이를 한데 묶은 5권 분량의 백서가 10주년을 맞아 발간됐다.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이하 108산사회)'는 오는 10월 14~15일 서울 도안사서 '거룩한 인연 아름답게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와 함께 108산사회 백서 〈희망의 연꽃으로 피어난 9년 발자취〉 고불식도 진행한다.

혜자 스님은 9년간에 걸친 기록을 모아달라는 주변 요청에 따라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그간의 여정을 기록한 '신행전법의 새장을 열다'(1·2권), 순례길에서 있었던 특별한 행사를 담은 '대중 속에 불심을 심다'(3권), 신행수기와 학술세미나(4권), 언론에 비친 108산사회(5권)로 정리돼 있다.

108산사회는 출범 당시 세간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 새로운 신행문화를 개척할 수도 있지만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될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108산사회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2012년 10월 31일 서울광장서 열린 108산사순례회 6주년 기념법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거룩한 인연 꽃피우자' 주제
천도재 비롯 다양한 행사 마련
법산·자광 스님 법문 이어
'평화의 불' 기행화보집 선봬

일정을 소화하며 순례를 불교계 신행문화로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

혜자 스님은 "기존 순례는 사찰에 가서 신도들에게 일정 시간을 주고 참배하게 하는 수동적 성향이 강했다"면서 "108산사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천수경〉을 독송하고, 108배와 축원을 올리며 진심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백서 발간에 대해



최근 발간한 108산사회 백서.

"이 같은 행적을 기록해 불자들의 신심이 회향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혜자 스님은 순례를 하면서도 신도들에게 순례사찰 이름을 새긴 염주알을 손수 하나씩 나눠주며 독려했다. 그 개수만 무려 65만개다.

세간에는 지난해 회향으로 순례가 끝났다고 알려졌지만 혜자 스님은 현재 108산사 순례 중간에 합류한 불자들과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53기도도량 순례 역시 병행 중이다. 스님은 이번 10주년 기념법회와 백서 고불식을 통해 불교계 내외에 감동을 전하고,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오전 10시 시작되는 기념법회는 1부 천도재 및 기도, 2부 기념법회, 3부 축하공연 및 108평화보궁 참배 순으로 이어진다. 14일과 15일 같은 행사가 이틀간 진행되는데 이는 참석 인원을 한 번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사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과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룸비니동산서 채화해 해외와 전국 60여곳에 분등하고 있는 '평화의 불' 이운과정을 담은 기행화보집 〈발길 닿는 곳곳마다 평화의 불 수놓다〉 발간기념식도 열린다.

혜자 스님은 "9년간 순례만 한 것이 아니라 군장병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대사회적 활동도 함께 했다"며 "기념법회 이후에도 이 같은 자비행을 실천하도록 회원들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혜자 스님이 주석하는 서울 도안사는 지난 8월 4일 은선묘아미타삼존불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383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사찰이 됐으며, 9월 21일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생활·엘리트체육 연계로 미래 설계"

이기흥 조계종 중신회장, 대한체육회장 당선

임기 2021년 2월까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61, 前 수영연맹 회장·사진)이 제40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이기흥 후보는 10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 열린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기호 3번으로 나와 총 투표수 892표 가운데 294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당초 세간에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 장호성 단국대 총장을 81표차(213표)로 따돌리고 사상 첫 통합체육회 수장직을 맡게 됐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이후 처음 선출하는 초대회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기존 50여 명이 투표하던 방식을 개선, 선거인단을 1405명으로 확대해 민주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투표율은 63.49%로 예상보다 열기가 높았다.

이날 이기흥 당선인은 당선인사서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모두 통합체육회 내에서 하나로 녹여내야 한다"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통해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재정자립 △체육인 일자리 창출 △스포츠 의·과학 도입 통한 경기력 향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임기는 10월 6일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이기흥 당선인은 2000년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을 시작으로 대한카누연맹 회장, 세계카누연맹 아시아대륙 대표, 대한수영연맹회장,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불교계에서는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장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불교계 남북교류, 그 전망은?

민추본, 10월 12일 신계사 복원 9주년 기념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10월 1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남북불교교류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30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9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행사는 남북불교교류의 역사와 흐름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한편, 신계사 복원 과정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토론회는 본부장 법타 스님의 '북한 불교의 이해' 기조강연에 이어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의 '남북불교교류의 역사와 흐름'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의 경과 및 의의'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의 '남북불교교류 계획과 전망' 등 주제 발제가 진행된다. 사회는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맡았다. **박아름 기자**

茶聖 초의 선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예술의 전당, 11월 6일까지 '바라밀다' 특별전

한국 차문화를 정립했던 다성(茶聖) 초의 선사(1786~1866)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와 학술대회가 열린다.

예술의전당은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을 기념해 '초의선사-바라밀 다(波羅蜜茶)' 특별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서울서예박물관 3층 역사상설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초의 선사와 관련된 희귀 유물 70여 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특히 눈여겨 볼 작품은 '다산사경첩(보물 1683-1호)'을 비롯해 '문수보살도(범어사성보박물관 소장)', '죽로지실(竹爐之室·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전다삼매(煎茶三昧·남농미술관 소장)', 초의 선사의 유품인 차 주전자 '흑유(黑釉·개인소장)' 등이다.

이동국 서예부장은 "추사 김정희가 초의 선사에게 써서 보낸 '죽로지실' 작품은 삼성박물관 리움서 27년만에 처음 대여할 정도로 아끼는 작품으로 실물로 볼 기회가 흔치 않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획을 통한 음양 원리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실(室)'이란 글자를 둥근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건축가들도 "우리가 오랫동안 구상해야 하는 건축기법을 단 한 글자로 표현했다"며 감탄했다.

선묵(禪墨), 불화(佛畵), 선시(禪詩) 등 다방면에 정통했던 초의 선사는 차를 선(禪)의 경지까지 끌어 올려 우리나라 차 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선문사변만어'를 통해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초의 선사의 유품 흑유 주전자. 개인 소장품으로 이번 전시서 공개된다.

초의선사 열반 150주기 기려
유품 주전자 등 70여점 전시
10월 15일 기념 학술대회도

이동국 부장은 "초의 선사는 조선 말기 문화사·예술사·정신사 전부에 걸친 '전방위 메신저' 같은 존재"라면서 "유학자들과 나이·신분을 초월해 격의 없이 교유하며 차를 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초의 선사 열반 150주기 학술대회가 10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예박물관 4층서 열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초의 선론과 조선후기 선논쟁(정병삼)을 비롯해 △초의차 완성과 그 영향(박동춘) △초의선사의 시문학 고찰(김미선) △초의차 전승 맥락과 제언(정서경) △초의와 경화세족의 교유(박철상) △초의와 다산·추사의 서(書) 비교 등이 발표된다. (02)580-1053

신성민 기자

한국 '참여불교' 과제 모색

불사연, 10월 12일 '지속가능성과 평화 위한 참여불교 세미나'

'참여불교'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참여불교의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는 10월 12일 오후 3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층 보현실서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참여불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 참여불교 현황을 통해 한국 참여불교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이날 발제는 유승무·민정희·정웅기 씨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주원·유정길·퇴휴 스님이 나선다.

먼저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참여불교의 정치사회적 개입과 시사점' 주제 발표에 이어 △민정희 기후생태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변화를 위한 참여불교의 사례'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의 '한국 참여불교 운동의 성찰과 모색' 등 발제가 이어진다. **박아름 기자**

인사말씀



조석으로 스치는 바람결에 오색 빛 계곡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한 줌의 갈대와 한 송이 국화꽃에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심오한 미소와 사계四季의 무상진리를 깨치게 합니다. '보림꽃예술중앙회'에서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제6회 전시회 [마음 머물다]를 갖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72년부터 시작된 꽃길과 1992년 보림꽃예술중앙회 창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장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 연마해온 회원들이 뜻을 모아 스님을 모시고 불교 및 일반작품 90여점을 미흡하지만 한자리에 펼쳐봅니다. 꽃과 Image 소통이 조화를 이룬 보림의 꽃 향연에 발길을 옮기시어 잠시 휴식과 힐링의 시간되시길 바라오며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원 일동

함께 하는 문화마당

남성 4중창	육화림 솔리스트 앙상블	10월 18일 낮 12시
피아노 독주	황명주	10월 18일 낮 12시 ~ 오후 1시
현악4중주	플러스앙상블	10월 19일 오후 3시30분 ~ 4시
찬조출연	기원사 합창단	10월 18일 (화) 오전 11시
궁중 전통다례 시연	명원문화재단	10월 19일 오후 3시 ~ 3시30분
체험 프로그램	꽃다발 만들기	10월 18일 오후 3 ~ 4시 10월 19일 오후 4 ~ 5시

제6회 보림회 꽃꽂이 전시회

마음 머물다 花화 画화 話화

2016. 10. 18(화) ~ 19(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현대백화점 미아점 10층 사파이어 홀

전시개막 : 2016년 10월 18일(화) 오전 11시 30분






■ 주최 : 보림꽃예술중앙회(불교꽃예술연구원)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기원사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재)대각회, 대한불교조계종 기원사 신도회·부부법회, (사)한국꽃꽂이협회,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사, 현대불교, 법보신문사, 월간 금강